



KIA 이범호, 작전 야구 통했다... 대타 불방망이

반등 성공 KIA, 지휘봉 주목 6월 대타 타율 압도적 1위 "선수들의 타선 집중력 통해"



경기 분위기를 단숨에 KIA 쪽으로 끌어오는 이범호(사진) 감독의 '대타 한 수'가 연일

적중하고 있다. 상황에 맞는 교체 작전이 연이어 성공하면서 벤치의 승부수는 적재적소에 통하고 있다는 평가다.

KIA는 지난달 29일 LG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끌려가던 6회초, 고종욱, 패트릭 위즈덤, 오선우, 김석환의 적시타로 두 개의 아웃카운트를 남기고 5점을 뽑았다. 역전에 성공했지만 전날 LG전에서도 7-1 리드를 2이닝 만에 무너뜨린 기억이 있어 추가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감독은 승부수를 꺼냈다. 득점권 타율 0.333의 박찬호를 김규성(득점권 타율 0.229) 대신 투입했고, 박찬호는 LG 투수 김진성과 8구 승부 끝에 희생 플라이

로 귀중한 추가점을 올렸다. 이어 8회초, 위즈덤이 투구에 무릎을 맞고 출루하자 대주자 홍중표가 투입됐고, 최형우의 안타에 이은 박찬호의 적시타로 홍중표가 홈을 밟으며 점수를 더 벌였다. 비슷한 상황은 키움전에서도 지난달 25일 키움전에서도

움과의 경기에서 이 감독은 7회초 박민을 고종욱으로 교체했고, 고종욱은 교체 즉시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추가점으로 흐름을 확실히 가져온 KIA는 결국 9회 승부에서 리드를 지켰다.

6월 연승 흐름을 타기 시작한 15일 NC전에서도 작전은 빛났다. 이 감독은 7회초 박민 대신 김규성을 투입했고, 김규성은 안타로 출루

한 뒤 번트와 상대 폭투를 틈타 홈을 밟으며 기회를 살렸다.

KT와의 3연전을 쓸어 담은 17일 경기에서도 대타와 대주자 카드는 효과적이었다. 3점 차 리드 상황에서 오선우의 2루타 후 타격감이 떨어졌던 황대인과 수비형 포수 김태군을 각각 박민과 공격형 포수 한준수로 교체했고, 이들이 연속 출루하면서 김규성의 2타점 적시타로 이어졌다. 이 감독은 이어 이창진 대신 고종욱을

올려 또 한 번 적시타를 이끌어냈다. 다음날 경기에서도 7회말 2사 만루에서 황대인 대신 투입된 이창진이 2타점

결승타를 날렸다.

KIA는 6월 한 달간 총 29타석에 대타 작전을 시도해 21타수 9안타, 대타 타율 0.429를 기록하고 있다. 리그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2위 두산 베어스(0.318)와도 1할 이상 차이가 난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LG전에서는 9회말 대타로 고종욱이 타석에 서자 LG 벤치는 자동 고의사구를 선택했고, 전체 대타 타석 중 불넷이 5번, 몸에 맞는 공이 3번이나 나올 정도로 상대 투수들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범호 감독은 "상황에서 대타를 썼는데 몸에 맞는 공으로 나가는 등 운도 있었다"며 "무엇보다 타석에서 선수들이 집중해줬기에 작전이 통했다. 앞으로도 타이밍을 잘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이은 성공은 단순한 선수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투수와 타자의 상승, 경기 흐름, 벤치 전략, 심리전이 결합된 결과다. KIA의 6월 반등은 그 치밀한 한 수에서 시작됐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고종욱

김규성

박민

전상현, 6월 MVP 후보 선정... KIA 첫 100홀드

KBO, 팬·기자단 투표 합산 7일까지 모바일 참여 가능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투수 전상현(29·사진)이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6월 월간 MVP 후보에 올랐다.

KBO는 2일 6월 월간 MVP 후보로 총 6명을 발표했다. 투수 부문에서는 전상현(KIA), 알렉 감보아(롯데), 로건 앨런(NC), 야수 부문에서는 빅터 레이예스(롯데), 맷 데이비슨(NC), 박민우(NC)가 이름을 올렸다.

전상현은 KIA 불펜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6월 반등을 이끌었다. 팀이 치른 24경기 중 15경기에 등판해 17.1이닝 9홀드 평균자책점 2.08을 기록하며 리그 최다 등판과 안정된 활약을 선보였다. 특히 지난달 28일 LG전에서는 KIA 구단 최초로 개인 통산 100홀드를 달성했다.

감보아는 선발로 나선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평균자책점 1.72로 다승



방어율 1위를 기록했다. 로건은 같은 기간 33이닝을 소화해 리그 최다 이닝을 던졌고 평균자책점 1.91로 방어율 2위에 올랐다.

야수 부문에서는 레이예스가 6월 타율 0.424, 36안타로 모두 리그 1위를 기록했고, 데이비슨은 타율 0.337, 홈런 7개, 장타율 0.616으로 장타 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박민우는 타율 0.369, 31안타, 24타점으로 타점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월간 MVP는 팬 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를 합산해 결정된다. 팬 투표는 2일 오전 10시부터 7일까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뱅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되며, 국내 선수가 수상할 경우 신한은행 후원으로 출신 중학교에 200만원이 기부된다.

민현기 기자

홍명보호, 동아시아컵 준비 돌입... K리거 총출동

7일 용인서 중국과 개막전 나상호 등 J리그 선수 소집

북중미행을 확정된 한국남자 축구대표팀이 본격적인 월드컵 본선 준비에 나선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3일 오후 소집해 경기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훈련에 들어간다.

이번 소집은 오는 7~16일 경기도 용인 등에서 개최되는 2025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대비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막을 내린 북중미대회 아시아 3차 예선을 통해 11회 연속이자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고 올해 동아시아컵에서 우리나라는 7일 오후 8시 중국과의 대회 개막전을 시작으로 11일 오후 8시 홍콩, 15일 오후 7시 24분 일본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차례로 대결한다.

이번 대회는 FIFA가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파를 강제로 차출할 수 없다.



홍명보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달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전 한국과 쿠웨이트의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재성(마인츠), 황희찬(울버햄프턴), 황인범(페예노르트) 등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과 박용우(알

아인), 조유민(샤르자) 등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을 부르지 못했다.

대신 K리그와 일본 J리그 소속 선수들 로만 선수단을 꾸렸다.

엔트리가 23명에서 26명으로 확대돼 추가 발탁한 주민규(대전), 강상운(전북), 모재현(강원)을 포함해 23명이 K리그(K리그1 22명, K리그2 1명) 소속이다.

나머지 세 명은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수비수 김태현(가시마 엔트러스), 미드필더 나상호(마치다 젤비아), 공격수 오세훈(마치다 젤비아)이다. 2023년 6월 이후 태극마크와 인연이 끊겼던 나상호는 2년 만에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장신 스트라이커 이호재(포항)를 비롯해 김태현(가시마), 변준수(광주), 서명관(울산), 김태현(전북), 서민우(강원), 이승원(김천)에 강상운, 모재현 9명은 A대표로 뽑힌 게 처음이다.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치르며 본선 엔트리 구상이 차츰 마무리된 가운데 미국 원정에 나설 9월에는 해외파 주축 선수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동아시아컵을 통해 소집된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민현기 기자

대한민국 스포츠영웅故 김홍빈 평전 발간

대한체육회는 2021년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된 김홍빈 대장의 치열한 삶과 등반 여정을 조명하는 평전 '도전과 나눔의 희망 전도사 김홍빈(사진)'을 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김홍빈 대장의 4주기를 앞두고 발간된 이번 평전은 김 대장과 산악 운동을 함께 했던 광주지역 언론인 정후식 씨와 문종국 선전문등산학교장이 공동 집필했다.

이번 평전은 총 8부로 구성돼, 김홍빈 대장이 겪은 시련과 도전의 행로를 상세히 다룬다. 1991년 북미 최고봉 데날리에서 조난 사고로 양손을 잃은 뒤에도, 30년간 세계 산악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김 대장의 도전 정신을 전한다.

평전에는 김 대장이 고산 등반 중 남긴 일기장과 원정 일지, 7대륙과 히말라야 원정 과정에서 수집한 다양한 자료들, 선

후배 산악인들과 후원자들의 증언과 인터뷰가 포함돼 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김홍빈 영웅의 삶은 극복과 나눔, 희망의 상징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그의 도전 정신이 이 평전을 통해 널리 전파되어 미래 세대에 꿈과 용기를 심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2011년부터 스포츠를 통해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체육인들을 예우하기 위해 스포츠영웅을 선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과 정신을 기록한 평전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체육회,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행복나눔교실' 운영

광주광역시체육회가 소외계층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2025 행복나눔교실'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행복나눔교실은 스포츠 참여 기회가 부족한 다문화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예산을 매칭해 확대 추진된다.

운영 종목은 △도(방림검도장) △골프(gpc생활체육) △배구(성덕초) △방송댄스(동구청소년수련관) △빙상(염주실내빙상장) △스쿼시(체육회관 스쿼시장) △축구(양산초·월곡초·소태풋살장) △클라이밍(핸드워크클라이밍 양산점) △탁구(송정다누리센터) △티볼(일곡초) △펜싱(포인트펜싱클럽) 등 11개 종목, 13개소에서 운영된다.

프로그램에는 종목별로 1020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매주 13회 강습이 진행된다.

각 프로그램에는 종목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지도자가 배정되고, 체육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용품도 지원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해당 용품을 학교나 시설에 기증할 예정이다.

전담수광주체육회장은 "스포츠도 복지의 하나인 만큼,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행복나눔교실이 스포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에게 평생 체육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